“외상대금 떼일까 걱정… 매출채권보험 가입할래요”

신보 광주신용보험센터 ‘매출채권보험’ 설명회 인파 북적

손실금 최대 80%까지 보상…올해 보상액 20억4200만원

광주 평동산단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가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연 ‘매출채권보험 설명회’를 찾았다.

진남색 작업복 차림으로 설명회장을 찾은 그는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거래처 100여 곳의 70%는 올해 들어 2~3개월 이내였던 대금 결제일을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늦추고 있다.

A씨는 “10년 전에도 떼인 대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인건비는 50% 넘게 뛰고 원자잿값은 크게 오르며 경영상황이 악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4%대 고정금리로 이용했던 대출을 9% 이자율에 쓰게 생겨서 불안감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광주신용보험센터는 개소 15년 만에 올해 처음 ‘매출채권보험’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 1조2000억원은 이미 소진됐지만, 외상대금 회수를 걱정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는 예상 인원을 훌쩍 넘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60여 명이 찾아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보험 보상을 받은 건수는 41건으로, 보상금은 20억4200만원에 달한다. 기업 1곳당 평균 5000만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거나 제때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광주·전남 매출채권보험 보상금은 19억2400만원(38건) 지급됐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매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기업의 당좌부도, 폐업, 해산등기, 회생·파산 신청 등 다양하다.

광주센터의 보상금 지급 사유 75% 상당은 결제대금을 연장 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결제지체’가 차지한다.

이날 강연에 직접 나선 장문수 광주신용보험센터장은 “매출채권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웃돌 정도이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암담하기 때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마저 닥치며 최근에는 건설업, 철강업 등 모든 산업 부문의 자금 시장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센터가 마련한 상담 자리를 따로 찾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소상공인은 “경영상 개인법인(개인사업자)에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잦은데 외상대금을 받을 방도가 까마득하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법인카드 대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업체가 허다한데 신용보증기금이 내건 가입 대상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재원에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총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광주 300만원·전남 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10만원(간편보험)부터 1억원대까지 다양하다.

지난 3월 광주시 북구 한 도매업체는 주요 거래처가 당좌부도가 났지만,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의 계열회사도 같은 시기에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연쇄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목포의 한 선박 자재 제조업체도 미결제대금 4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중재로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광주·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10월 말 기준 보험가입 신규 업체는 35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46곳) 증가했다. 보험가입 금액도 같은 기간 6686억원에서 7873억원으로, 17.8%(1187억원) 늘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가 2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연 ‘매출채권보험 설명회’에서 고은주 차장이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 연말 제조업 체감경기 ‘최악’

매출·신규수주 전망 등 하락…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애로사항 꼽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기업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11월 지역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9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다음달 업황전망BSI도 66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전국 제조업 업황BSI는 7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업황 BSI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한 값이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5월 43으로 바닥을 찍었던 경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말 78로 마감했다.

이후 70대 초반까지 떨어진 뒤 옆걸음질하다가 이번에 60대로 주저앉았다.

제조업 매출BSI는 74로 전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떨어졌다.

다음달 매출전망BSI도 72로 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신규수주BSI는 72로 12포인트, 다음달 신규수주전망BSI도 73으로 4포인트 급락했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22.2%), 내수부진(13.8%), 원자재 가격상승(13.7%), 환율(12.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1.9%) 등이 차지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비중이 지난달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고환율에 대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76으로 전달과 동일하고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76으로 1포인트 떨어졌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와 비제조업체 498곳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연탄 기증

취약계층에 2만2000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사진 왼쪽 네 번째)은 23일 ‘2022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2만2000장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측에 기증했다.

그동안 협회는 2015년부터 회원사들이 함께 동참하는 연탄나눔 후원을 통해 총 9만8000장의 연탄을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후원했다.

이날 연탄 후원에 동참한 회원사는 고운주택㈜을 비롯해 중흥건설㈜, ㈜영무건설, ㈜모아종합건설, ㈜리젠시빌주택, ㈜광신종합건설, 대성건설㈜, ㈜리채, 국제미소래㈜, ㈜우미개발, ㈜미래주택건설등 11개사다.

정기섭 회장은 “자신의 일처럼 정성을 모아준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회원사들과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994년부터 29년 연속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을 통해 289가구를 개·보수, 2014년부터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행복둥지사업’과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펼쳐 1111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을 추진 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벤처스, 벤처기업 투자 본격화

‘C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효성벤처스가 벤처기업 투자 본격화에 나섰다.

효성벤처스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사업인 ‘CVC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CVC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CVC 펀드는 투자 수익 중심의 일반 펀드와 달리 미래 신사업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로, 이번 CVC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출자사업이다.

이번 CVC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효성벤처가 300억을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효성벤처스는 향후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스케일업 투자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조현상 효성 부회장,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부사장,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이사와 장영진 산업부 제 1차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VC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벤처스는 올해 설립된 신설 CVC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효성그룹의 기술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중소·중견기업들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효성벤처스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CVC 펀드 조성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부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제1차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철호 효성벤처스 대표이사.

새얼굴

“에너지 위기 극복 선도적 역할 하겠다”

강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한국전력의 혁신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선도적 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으로 22일 새로 취임한 강유원(56·사진) 본부장은 이날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 본부장은 취임하며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역량을 모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도적인 본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

또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저력 있는 광주전남본부의 성장을 지속해서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신임 본부장은 부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전에 입사한 후 기술기획처 연구개발부장, 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장, 남부건설본부 본부장, 송변전운영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송변전운영처장 재임 기간에는 전력설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송변전 예방진단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로 경영평가 S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광양산단, 가뭄 극복 위해 공업용수 취수원 다변화를”

영·섬유역본부 물 전문가 워크숍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23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에서 영산강·섬진강 가뭄대책 물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식 영·섬유역본부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해 들어 영산강·섬진강유역 4개 주요댐 강우량은 예년의 55%~67% 수준에 불과하다.

댐용수공급기준에 따라 주암댐과 평림댐은 지난 8월부터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이다. 기상청이 내년 1월까지 남부지방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대책으로 여수·광양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 지하수저류지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유역 간 물이동(워터-그리드) 방안을 통한 물 이용 효율성 제고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8.01(+12.74)
↑	코스닥	725.59(+13.33)
↑	금리 (국고채 3년)	3.849(+0.005)
↓	환율 (USD)	1351.80(-4.80)

광주축산농협 내년 사업계획·수지 예산 수립

광주축산농협은 최근 광산구 신촌동 본점에서 ‘2022년도 제3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임원과 대의원들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앞서 광주축협은 모든 조합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대의원회에 이어 광주축협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임·직원 및 조합원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